

창작뮤지컬 '플라워' '오세암' 연극 '나생문'

무대 위에 펼쳐지는 佛法の 향연으로



#내가 있는 집착 내려놓기 창작뮤지컬 '플라워'

1971년 창단된 극단 맥토의 작품이다. 인생의 낙오자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비주류들이 주인공이다. 한 때 잘 나가던 미아리 나이트클럽 사장, 전직 몰락한 사이비 교주, 가난이 싫어 가출한 언어 장애우, 어린 시절 천재 소년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청년 금동이, 공양간의 박 보살 그리고 엄마를 잃은 아홉 살 지혜가 인적 드문 천화사(天花寺)에서 만난다. 선(禪) 수행중인 연공 스님은 이들이 못마땅하지만 한다. 주지스님은 인자한 너털웃음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그들은 천화사에서 기적을 이뤄 줄 한 송이 꽃을 찾고자 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그 각오는 퇴색되어 간다. 낙오자들의 도피처인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행자의 요람인가, 기구한 운명을 탓하기만 하는 이들 앞에 어린 지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다. 불협화음이면 모두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면서 한 마음이 되어 간다.

주지스님은 선종2조 혜가 스님과 제자 승찬 스님의 죄와 참화에 대한 문동병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과거의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가. 모든 것은 본래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을, 나 역시 자연인 것을 알아가게 된다. 이외에도 해와 바람이 친구가 되는 동화와, 달마 대사와 혜가 스님의 마음에 관한 대화를 빌어 그들이 그토록 찾았고자 했던 기적의 꽃을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너와 내가 투영되고, 서로를 비추는 참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 3막이 시작된다. (02)2238-0903

#아! 어머니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오세암'

봉축 전야음악제로 무대에 오른다. 지난 수년간 서울 경기 지역 불교합창단을 이끌며 찬불가를 통한 포교에 앞장서온 관음회합창단과 불교계 유일의 바라 오페라단의 앙상블이다.

해안 포구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사는 갑이네 집에 세암이가 태어났다. 병고로 아빠는 가족의 곁을 떠나고 뒤이어 집에 불이나 엄마도 잃게 된다. 부모를 잃은 두 아이를 설정 스님은 절로 데려오고, 마당령 고개턱에 자리 한 관음암에 개구쟁이 세암이와 함께 오른다. 관음암에서 놀다 지친 세암이는 관세음보살 탕화를 발견하고 탕화 속 보살상을 엄마라 부르며 지극정성을 다한다. 설정 스님이 겨우내

불교의 가르침을 소재로 하는 뮤지컬과 연극으로 공연예술계가 풍성하다. 싱그러운 5월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한 마당을 법당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생로병사' 라고 하는 기승전결로 사랑하며 갈등하는 주연 배우일 테니까 말이다. 대학로 김동수플레이하우스에서는 뮤지컬 '플라워(flower)'가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연장 공연에 들어갔다.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는 바라오페라단이 '오세암(五歲庵)'을 5월 2일과 3일 이틀간 공연한다.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는 구로자와이키라 감독의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생문(羅生門)'이 5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연극으로 재구성돼 관객을 만난다.



왼쪽부터 창작뮤지컬 '플라워' 공연, 창작뮤지컬 '오세암' 공연, 연극 '나생문' 공연 중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잠시 내려 간 사이 마당령에는 폭설이 내린다. 이듬해 눈이 녹아 산에 오르니 죽은 줄로만 여겼던 세암이는 부처가 되어있었고, 탕화 속 관세음보살이 눈을 뜬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만경대 아래에 있는 암자 오세암에 얽힌 관음 설화를 뮤지컬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전체 3막 9장으로 구성됐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정재봉 작가의 단편영화 '오세암'은 2003년 성백엽 감독에 의해 75분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선보였던 작품이다. 이번 뮤지컬의 연출을 맡은 안병길(사)삼보불교을 약협회 사무총장)씨는 불교음악의 지휘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자연스럽게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아로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010-4654-9369

#유식학으로 재보는 진실과 거짓의 '간격' '나생문'

인간의 본성에 물을 던진다. 한 가지 사건에 관하여 각각의 인물들이 털어놓는 엇갈린 진술을 통해 '사람 사이에 신념은 어떤 잣대를 두어야 하는가,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 한가'를 묻는 문제극이다.

'나생문'은 아쿠타가와류노스케의 소설로 구로자와이키라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1951년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 등을 수상한 고전 영화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나생문의 성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모여 앉은 나무꾼과 스님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 이들은 그 날 벌어진 괴이한 살인사건 재판의 증인이다. 산적 타조마루가 사무라이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 각자 다른 진실을 진술하면서 갈등은 점차 고조된다. 엇갈린 진술 속에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관객은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하나의 진실을 바라보는 상분(相分)에 대한 견분(見分)으로 불교의 유식학(唯識學)적 접근을 통해 관람한다면 극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상의 나생문을 오고 가고 있을까. 상반된 진실 혹은 거짓의 퍼즐 속에서 왜곡된 기억에 의존하며 진실이라 믿고 살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은 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가. 구로자와이키라 감독의 말처럼, '이기주의는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죄악'인 것일까? (02)556-5910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플라워	오세암	나생문
공연기간	4월 26일 ~ 5월 25일	5월 2일 ~ 3일	5월 9일 ~ 6월 29일
공연장소	김동수 플레이하우스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공연시간	평일 오후 8시 토·일·공휴일 오후4시·7시 (월요일 공연없음)	오후 7시 30분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3시·6시 5/12 석가탄신일 오후 5시 6/6 현충일 오후3시·6시 (월요일 & 5/13 공연없음)
티켓가격	전석 3만원 불교·기독교·천주교신자 20% 할인	무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선종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말린다래순 볶음나물



수액, 피로회복 항암효과 신장염 약효 열매 숙성하면 단맛과 신맛 어우러져

<동의보감>에 의하면 다래나물은 '심한 갈증과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멎게 하고 결석치료와 장을 튼튼하게 하며 열기에 막힌 증상과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식용과 약용 등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어린순은 그늘에 말려 무나물로 이용합니다. 특히 수액은 민간요법으로 피로회복, 항암효과, 신장염 등 다양한 약효가 있습니다. 곡우를 지나 나무의 생리 활동이 왕성한 봄이 되면 다래나무에 상처를 내어 수액을 받아 마시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래는 다래나무과의 낙엽활엽 덩굴나물로 길이는 7m 정도이며 줄기의 골속은 갈색으로 계단모양으로 층이져 있습니다. 어린 가지에 잔털이 있고 껍질눈이 뚜렷합니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날카롭고 가는 톱니가 있으며 일그러짐이 에만 갈색의 털이 나 있습니다. 잎자

루에는 누운 털이 있고 일그러짐이에서 나온 취산꽃차례는 털이 없으며 잎자루보다 짧습니다. 꽃은 암꽃과 수꽃이 따로 5월에 흰색으로 피고 3~10개의 꽃이 달립니다. 수꽃에는 많은 수술이 있고, 암꽃에는 1개의 암술만이 있으며 암술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양입니다. 열매는 달걀형으로 10월에 황록색으로 익어 식용합니다. 한국·일본·중국(둥베이)·우수리 등지에 분포합니다.

다래는 열매를 따서 숙성시켜 먹으면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맛이 좋습니다. 또한 숙성시키지 말고 그대로 말려서 약재로 이용하는데 약명은 미후도입입니다. 봄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다래 순을 따서 삶아 말렸다가 튀나물로 먹습니다. 부드러운 감칠맛이 어느 산나물보다 맛있고, 하지만 말리지 않고 생으로 데쳐서 바로 나물을 무쳐먹으면 아린 맛도 나거나 미끄러운 진액이 나와서 맛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린다래순 볶음나물 재료: 다래순, 들기름, 깨소금, 간장

만드는 법

1. 말려둔 다래순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을 넣어 삶는다.
2. 물이 식을 때까지 그대로 2~3시간 두면 부드럽게 불어 부드러워진다.
3. 다래순을 건져서 물기를 꼭 짜고 간장 깨소금을 넣는다.
4. 간과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무친 다음 뜨거운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른다.
5. 양념된 다래순을 넣고 잘 볶아 완성한다.

볶을 때 너무 습기가 없으면 부드러운 맛도 없어지니 주의한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액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침상대, 매트리스, 안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땀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걸재질 : 모노방시, 황토펀 · 크기 : 1,000mm×2,000mm · 무게 : 11kg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cm×45cm

사용처
최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차, 학생 사무용, 스님 등 수련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땀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땀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제주문의 011-9230-2335

소원성취 원불봉안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당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메: 다울[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라마을 앞
2. 삼동신도시 사거리 비잔티움 뒤 상 3동 사무소, 119소방센터 맞은 편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

